

TO BREAK THE RULES,  
YOU MUST FIRST MASTER  
THEM.

주유 계곡, 천년의 척박함, 혹독한 환경 : 1875년 르 브라수스의 마을에서 오데마 피게는 태동했고, 초창기 워치메이커들은 이곳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.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힘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, 그것의 신비로움을 마스터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복잡한 기술력들을 통해 구현되었습니다.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선구자적인 정신은 파인 워치메이킹의 전통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.



AUDEMARS PIGUET  
*Le Brassus*

로얄 오크  
셀프와인딩  
핑크골드

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02-3449-5917

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-3479-1809